

96.3.29

조기 입학 과기원생 “적응못하겠다” 자살

16살에 한국과학기술원에 입학
했던 학생이 대학 생활에 적응하
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.

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.

대전 / 하석 기자

28일 새벽 6시께 대전시 유성구
어은동 한빛아파트 109동 앞 꽃밭
에 한국과학기술원 이현우(19·화
학공 3년 휴학·경기도 하남시 창
우동)씨가 머리에 파를 흘린 채
숨져 있는 것을 이 아파트 경비원
윤아무개(59)씨가 발견해 경찰에
신고했다.

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검정
고시로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
전과학고를 졸업한 뒤 만 16살 되
던 93년 과기원에 입학했다가 3학
년을 마친 뒤 최근 학교생활에
적응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휴학
했다.

경찰은 이 아파트 옥상에 먹다
남은 술이 놓여 있고 이군이 친구
의 호출기 음성사서함에 “인연이
있으면 다음에 만나자”는 말
을 남긴 점 등으로 미뤄 학교생
활에 적응하지 못해 고민하다 스
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